

칼럼



장기채 주필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란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 간다. 세월은 육체의 활기를 빼앗아 가지지만 지혜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더 가까워지지만 그래서 더 죽음을 무시할 수 있다. 짧은 인생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분명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다. 많은 일을 경험하며 말도 많지만 지혜도 많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보호 할 줄 아는 사회는 복된 사회 일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가정의 꽃이라면

노인은 지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른과 자람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부모와 자녀간, 스승과 제자간, 직장 상하간, 그리고 노년과 청년 세대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그렇다고 그 탓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세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갈등의 주체인 어른과 젊은이가 변해야 한다. 우선 오늘의 노년 세대는 옛 선조들과 오늘의 젊은이를 이어주는 교량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변화된 시대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치와 지혜를 옛 선조들이 남긴 교훈에서 찾아내야 한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에게 전달하고 스스로 몸소 실천해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세대간 갈등이 완화되고 치유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들도 많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이와 똑같아 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개처럼 살다 원숭이처럼 늙은 것은 서럽다. 그 서러움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노여움이 되고 소신은 아집이 된다. 마이크를 잡아도 들어주는 사람

이 없다. 말이 많아질수록 주위에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오죽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을까. 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만 있는게 아니다. 배워야 할 것도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반대로 두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아 가지고 싶지만, 죽을 때는 가진 것을 다 내주어 빈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사랑받는 법을 배우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배푸는 법을 배우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 노인들은 지혜고

버려야 하고 할 겨를조차도 없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사는 노인이 더 많다. 대한민국 노인의 '오늘'은 과연 암울한가. 좀 산다는 나라 가운데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다. '끼니를 걱정하는 노인들'은 바로 우리 이야기다. 어쨌든 불교의 설화 모음에 나타난 노인의 지혜는 끝없이 많다. 이제 멋있는 노년을 위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노인이 사는 지혜를 터득해 보자. '논어' 자한 편에서 '공자는 4가지가 완전하지 않았다 (자절사·子絶四)'고 했다. 4가지란 의(意), 필(必), 고(固), 아(我)다. 여기서 '의'는 근거 없는 억측이요, '필'은 무리하게 관찰시키려는 자세요, '고'는 융통성 없는 완고함, '아'는 오직 나만 이라는 집착으로 풀이된다. 이 4가지가 없어야 성인이라 했다. 또 탈무드는 인간의 생애를 7단계로 설명했다. 한 살은 임금님, 모든 사람이 임금님 모시듯 비위를 맞춘다.

두 살은 돼지,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군다. 열 살은 새끼 양,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닌다. 열 여덟 살은 말, 다 자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 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한다. 중년은 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람들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한다. 노년은 원숭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린이와 똑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아야 한다. 미운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랑 하지도 말고 조심조심 알려줘야 한다. 일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고 그렇게 사는것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이기려 하지 말고 저 주시구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란다. 이제 부터라도 과연 나는 불어난 나이만큼 더 현명해 졌을까? 문득 창 밖을 바라보면서 자문해 봐야한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보다 지금이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오늘,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약간의 개선을 원할 뿐이지 너무나 큰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가지 않는 길을 가야하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과 걱정이 먼저 앞선다. 지금은 오늘, 현재보다 더 우리들 피부에 와 닿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현실이면서 생활하는데 가장 가까운 동반자와 같다. 오늘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머무는 마음이 클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지하며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모없는 사람들로 변하여 그 자리에만 안주하고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삶이 퇴보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는 내일의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생활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면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간다. 현재는 한 달도 아니고 오늘보다 더 짧은 시간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 시간 가장 중요하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미래보다는 오늘이 더 중요하지만 현재 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 현재와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생활한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명확하고 추진력 있게 할지 답이 보일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과거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황금의 시간이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란 말이 있듯이 남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지금이다. 내 인생의 최고 순간에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된 일인지 알 수 있다. 모든 일은 순리가 있는데 요즘은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그 사람의 평가는 오직 결과에만 매 달린다. 결과가 중요한 세상, 어떤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는 세상의 흐름이 더욱더 삭막하고 긴장감속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다. 오늘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고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자기 자신의 부단한 노력 여하에 따라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것이므로 우리 모두 소중한 지금 이 시간을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낸다면 미래의 자기 인생 여정에 많은 성장과 보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국중군/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부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계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엔프레스